

영혼과 육신을 구원해준 운명 같은 책

번역가 안인희씨가 뽑은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네 형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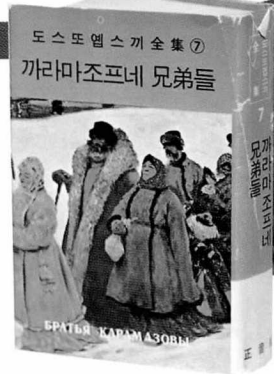
독일어권 번역가 안인희씨는 지금까지 슈테판 츠바이크 책만 다섯권 번역했다. 그는 집요한 구석이 있다. 베토벤의 평전을 쓴 로맹 롤랑의 평전을 쓴 츠바이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번역가. 이것이 그의 첫인상이다.

“도스토예프스키와 니체 사이에서 좀 망설였는데, 도스토예프스키로 결정했어요. 그를 다 읽고 니체로 넘어갔거든요. 저에게 니체 없는 도스토예프스키는 있을 수 있지만 도스토예프스키 없는 니체는 불가능해요.”

안씨는 식탁 위에 정음사판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꺼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독일인들도 “사람 때려죽일 책”이라며 혀를 내두르는 저 두꺼운 책들을 그는 대학 1학년과 3학년 때 한번씩 완독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책을 읽으며 꽤 두꺼운 독서일지를 작성했고, 그걸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년 훨씬 저편의 일이라 노트가 온통 바랬지만, ‘Dostoevskii’ 라고 쓴 글자는 희미하게 남아 있다.

“신과 인간, 선과 악의 관계를 그만큼 철저히 탐구한 작가는 없었어요. 특히 《까라마조프네 형제들》은 사상적·종교적 문제, 인간의 본질에 관한 사색을 최대한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긴밀하고도 장대하게 집대성한 걸작입니다.”

그의 노트에서 “내 안에 이미 그 모든 씨가 들어 있으나 다만 희미하게 감지했던 사상과 감정의 흐름이 일시에 뚜렷하게 빛나는 색채를 가지고 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는 글이 눈에 띈다.



“신과 인간, 선과 악의 관계를 그만큼 철저히 탐구한 작가는 없었어요. 특히 《까라마조프네 형제들》은 사상적·종교적 문제, 인간의 본질에 관한 사색을 집대성한 걸작입니다.”

안씨가 스물두살 때 지적 황홀에 겨워 적어 내려간 문장들은 그 자체로 영혼과 영혼의 대면이었고, 진정한 ‘독서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니체와 쉴러, 프로이트를 읽을 때도 도스토예프스키가 독서의 길잡이가 돼줬다. 모든 사상과 정념들이 그와 비교되면서 실체가 드러났고 진위가 갈렸던 것이다.

안씨의 정신적 스승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다. 대학 3학년 때 그는 부엌 바로 위의 다락방에서 책을 읽거나 잠을 자곤 했는데, 사건이 있던 날도 새벽 4시까지 《까라마조프네 형제들》을 읽고 있었다.

“정신도 말짱하고 즐리지도 않는데 얼굴이 자꾸 책 속으로 처박히는 거였어요. 고개를 들면 다시 떨어지고 해서 뭔가 이상한 감각이 들었죠. 그래서 후다닥 마당에 나왔는데, 찬공기를 쐬는 순간 그만 쓰러지고 말았죠. 연탄가스였어요.” —강성민 기자

논어 철학

王邦雄 외 지음/황갑연 옮김/448면/16,000원

이 책은 대만의 문화대학(文化大學) 철학과에 재직했던 교수들이 《논어》에서 철학 사상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엮은 책으로 공자의 근본 정신에 대한 후인들의 잘못된 견해를 교정, 조화 정신의 부활을 통해 현대인들의 편협한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 일체의 조화 정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발전과 경제윤리

황의서 지음/256면/9,000원

이 책은 창조성과 질서는 경제발전을 주관하는 정신적 실체들이며, 경제윤리의 범주 안에 있다는 전제 아래 물질적 풍요로 인한 사회의 타락과 인간성의 상실을 회복하는 대안으로서 경제윤리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제윤리는 경제발전을 올바르게 향유하는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리학에 대한 3가지 도전

제임스 P. 스타바 지음/배석원 옮김/240면/8,000원

이 책은 전통윤리학이 환경주의, 여성주의, 문화 다원주의에 의해 제기된 3가지의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야 함을 주장, 도덕적 상대주의를 배격하며 전통윤리학의 여러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 책은 윤리학과 도덕적 문제에 관한 입문과정의 매력있는 교재로 독자들에게 새로운 안목을 제시해줄 것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820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 924-6161 편집 924-6165 팩스 922-4993

E-mail : phil161@chollian.net

http://www.seokwangsa.co.kr